

현시기 생태도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조영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건설에서 도시형성을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하며 건물형식도 다양하게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단행본 8페이지)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시고 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을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보장되고 공해가 없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을 사회주의선경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현시기 세계적인 도시건설의 발전추세로 되고있는 생태도시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생태도시는 자연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하는 지속적인 절약형도시, 무공해도시이다. 다시말하여 자연환경보호를 위주로 하면서 경제의 끊임없는 발전과 인민들의 다양한 문화정서적인 요구를 보장해주는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건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리념에 관한 문제로서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단히 변화발전하여왔다.

도시건설은 B.C. 8~6세기경에 농업으로부터 수공업이 분리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의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에 의하여 수공업생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되였다. 당시에는 도시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으며 도시건설도 완만하게 진척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하여 기계제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새 도시들이 생겨나고 농촌에서 도시예로의 인구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져 도시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도시건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도시인구의 집중은 곧 산업의 집중에 이어지고 도시규모의 과대팽창은 필연적으로 대기오염, 물오염,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 생물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 지구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과학과 예술적측면만을 위주로 도시공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형성을 추구하던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류에게 건전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할수 있는 생태도시건설방향으로 나가고있다.

현시기 생태도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생태도시의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생태도시의 특징은 우선 생태환경보호를 위주로 하여 건설된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의 도시들은 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뿐아니라 과학과 예술적측면을 위주로, 새로운 공업지구건설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서 건설되였다. 이것은 도시에 폐설물과 소음, 배기가스를 내보내여 대기, 강하천, 바다와 토양을 심히 오염시키게 하였다.

이로부터 도시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공기와 물, 토양이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되는것을 막으며 소음, 진동, 역한 냄새와 같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생태도시의 특징은 또한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인민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적인 요구와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건설된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의 도시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계되고 건설되었지만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인구가 장성하여 도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문제, 에네르기리용문제, 살림집문제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문제들이 제기되어 경제발전을 심히 저해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정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태환경보호의 견지에서 도시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현시기 생태도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생태도시건설의 기본요구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생태도시건설의 기본요구는 첫째로, 도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분산배치계획을 정확히 실현하는것이다.

우선 지난 시기의 다중심도시건설을 다중심, 다기능도시건설로 전환시켜야 한다. 1970년대초에 나온 다중심도시계획론은 단일중심의 대도시를 여러개의 기능중심으로 나누고 도시중심에 집중되어있는 기관, 기업소, 주민과 교통을 분산배치할데 대한 리론이다.

다중심, 다기능도시건설이란 다중심의 거주계획지구에 종합적인 거주, 공공건물, 생산기업소, 공원, 체육 및 문화휴식기능이 더 포함된 종합생활단위를 새로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 교육, 생산이 일체화된 여러 전문화된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

생태도시건설의 기본요구는 둘째로, 사회경제적인 생태도시구조와 그 순환고리를 완성하는것이다.

과학적인 도시인구설정과 적합한 토지자원리용, 산업구조의 최소화, 사람들의 류동과 물자류동, 정보류동의 고속화, 공급처리의 생태적순환체계의 완성은 곧 사회경제적인 생태도시구조형성의 기본을 이룬다.

우선 도시인구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사업을 도시의 사회발전수준, 자연자원의 리용과 소비, 생태환경보호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토지자원을 생태법칙에 부합되게 리용하는것도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도시인구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토지자원을 생태법칙에 알맞게 리용하는것은 생태도시구조형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도시산업구조의 최소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태공업기술원리에 기초하여 자원을 종합적으로, 립체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생산물과 폐기물의 생태적순환고리를 형성하는 도시산업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특히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들과 건물들, 에네르기절약 및 생산형건물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지난 시기의 도시들을 절약형, 자급자족형도시로 점차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사람들의 류동과 물자류동, 정보류동의 고속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류동에서 신속성과 믿음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운수수단의 운행과 사람들의 보행을 엄격히 분리하고 교통운수수단은 고속화된 도로로, 사람들은 생태환경으로 꾸려진 건강도로로 다니도록 하며 정보류동은 정보고속도로에 의하여 실현해야 한다.

생태도시건설의 기본요구는 셋째로,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지능건물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도시의 수자화,

지능화를 적극 추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능건물은 3가지 자동화된 건물 다시말하여 통신과 사무처리, 건물판리의 현대화가 실현된 건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지능건물로서는 지능살림집, 지능병원(가상병원), 지능학교(가상학교), 지능도서관(전자도서관), 지능전자상점 등을 들수 있다.

이밖에도 도시안에 울창한 수림과 함께 조형화되고 예술화된 건축물과 공원, 거리를 꾸리며 갖가지 아름다운 새소리, 물소리, 은근한 음악소리, 향기로운 냄새,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감수할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생태구조를 창조해야 한다.

현시기 생태도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생태도시를 합리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것이다.

생태도시를 합리적으로 건설하자면 우선 도시를 전망성있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건설총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도시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매개 도시의 전망인구수, 도시계획령역, 보호령역의 규모와 경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큰 규모의 도시들에서는 도시건설령역을 다중심, 다기능성격을 가진 여러개의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으로 분할하여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을 형성하는것은 구역안의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로동, 거주, 문화휴식, 교통조건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도시구조형성방법이다. 도시규모에 따라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의 규모와 그 기능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중심부에 여러개의 거주 및 생산구획들을 조직하여야 한다.

도시안에 배치되는 기관, 기업소,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모든 건설대상들을 그의 사명과 특성, 규모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들에 조절배치하

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 및 생산종합구역 안에서의 류동은 도보로, 구역들사이에는 교통운수수단으로 하며 래왕시간을 줄일수 있도록 료환선도로와 립체교차시설을 단계별로 완성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된 도시로서 과학, 교육, 생산이 일체화된 다기능 류형의 도시를 많이 형성하여야 한다.

도시건설에서 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수망과 상하수도망, 송배전망, 통신망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을 잘하지 않으면 도시를 전망성있게 건설할수 없으며 그 관리도 제대로 할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통로속에 전력선, 통신선, 상하수도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의 도시기술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부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만든 지하공크리트구조물인 다기능공동합거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망으로 련결시켜야 한다.

생태도시를 합리적으로 건설하자면 또한 생태환경보호와 도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시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생산면적을 줄이고 내부는 궁전과 같이, 외부는 공원처럼 꾸림으로써 공해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또한 오염이 없고 유해롭지 않은 룽색건재를 적극 개발리용하고 에네르기절약 및 생산형건물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시건설의 새로운 발전추세를 잘 알고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담대한 기상으로 모든 도시들을 21세기의 사회주의선경도시로 꾸림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가 우러러 보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